

이낙연 신당-민주 탈당파 신당, 통합...당명 '개혁미래당'

“국민의 기대와 명령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 내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 지도체제 등도 공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28일 단일 정당으로 통합한다. 양당은 공동 창당에 합의하고 다음달 4일 '개혁미래당'(가칭)이란 이름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과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려는 국민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 창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의 성격에 갖게 된다"며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칭 통합 당명인 '개혁미래당'에 대해선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

당대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했다"며 "정강 정책과 선거공약은 이번 주부터 선보이고,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그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개혁미래당 내 대통합추진위원회를 두어 정치혁신과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5인 지도부 체제(법적 대표 2명)로 운영하고, 인선은 창당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이 추진하던 '비전대회'는 "중자 3자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석 미래대연합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각 당이 가급적 공천 프로세스 들이 이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전 대화, 가치 비전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정치혁신 바라는 세력들의 통합이 가능할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검토되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설 이전 제3차대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가능성이 낮다"면서 "(다음달) 4일은 공동 창당에 주력하고 창당 했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 선보일 것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박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모든 타임라인은 각 당이 창당하기 전에 한꺼번에 창당하는 게 최근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천이 예민하게 선행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각당 공천 개입 이전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통합정당의 당명이 '개혁신당'과 유사한 것이 향후 통합을 염두해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시 대 정신을 담은 단어인 미래, 개혁, 통합 안에서 찾아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특히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동창당을 발표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를 향해 "무임승차는 지양하길, 당명이든 상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이 개혁을 화두로 삼아 이슈를 만들어가는



박원석(오른쪽)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황에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합쳐져서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것은 언제나 축하한다"면서도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진다고 그대로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희면기자

'윤-한 갈등' 이후 한동훈 지지율 고공행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겐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였다. 여당 사령탑에 오르면서 과제로 주어진 '윤석열 아바라' 꼬리표 떼기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한 갈등' 봉합 이후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 직무 긍정률이 중도층에서도 지지를 받으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한 위원장이 당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묻은 결과 응답자의 52%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40%로 이보다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면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59%)는 답이 '잘하고 있다'(35%)보다 많았다. 한 위원장보다 긍정 평가가 17%포인트(p) 적다.

직전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11월 21~23일 한국갤럽 조사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26%에 불과했다. 약 두 달 새 당대표에 대한 평가가 뒤집힌 셈

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은 약 70%가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한 위원장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각각 40%로 동일했다. 또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벌였음에도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89%가 한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9%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7%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17%, '잘하는 편이다'는 30%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각각 22%, 18%다.

서선욱기자

광주 북구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지속된 국회 계류에 북구의회 24일 제정 촉구 성명 발표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25일 1,700만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달빛철도는 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현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난해 8월 발의됐음에도 경제성을 앞세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반대 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뀔수록 멀어지는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들

은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북구의회도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달빛철도 건설은 영호남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며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호남 상생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영호남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는 대표적인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으로써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